

한국학 이슈

한국 문학, 번역과 탈식민주의적 사유

자넷 풀(Janet Poole) 교수에게 북미 한국학을 묻다

허빛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anaik@naver.com

- I. 들어가며
 - II. 전공의 전환, 시공간의 확장: 식민지 모더니즘 연구의 길
 - III. AI시대의 번역과 ChatGPT
 - IV. 북미 한국 문학 번역 현황 및 쟁점
 - V. 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 VI. 나가며
-

인터뷰 개요

일시: 2024년 1월 19일(금), 15:30~16:40

장소: 토론토대학교 세인트조지 캠퍼스 내 동아시아학과 사무실

면담자: 허빛(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이 인터뷰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동아시아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¹의 자넷 풀(Janet Poole) 교수와 진행한 대화이다. 자넷 풀 교수는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기 문화사, 번역 이론을 접

1 토론토대학교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학부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언어 교육 위주로 소규모 강의가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 식민지기 문학, 분단과 냉전, 민속문화 등의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 점차 개설되며 커리큘럼이 확대되었다. 1971년 종교학과에서 로스 맥도널드(Ross McDonald) 교수가 '한국 사회의 종교' 강의를 개설하면서 토론토대학교 내 한국학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이후 1977년 동아시아학과 유채신(Chaesin Yu) 교수의 '한국 문명 입문' 강의 개설로 한국학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강좌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확대되었고,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 식민지기 문학, 분단과 냉전, 민속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과목들이 개설되며 한국학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문학, 문화, 현대사, 종교 등을 전공한 교수진의 충원과 함께 학문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박사과정에서 한국 문학 및 사상사를 주제로 연구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배출되었다. 학부 수준에서는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의 한국어 강좌를 비롯해 한국 영화, 현대문학, 식민지 경험, 디아스포라 서사 등을 다루는 과목이 마련돼 있으며, 학제간 연계를 바탕으로 비교문학, 종교학, 인류학, 정치학 등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론토대학교의 청유통 동아시아 도서관(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한국학 연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학, 역사, 한국전쟁, 민속학, 사회과학, 정치학, 미술, 언어, 문학 관련 7만 5,000권 이상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목한 연구로 주목받아 왔으며, 특히 이태준과 최명익 같은 작가의 산문,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 독자에게 소개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주요 번역서로는 이태준 산문 선집 *Eastern Sentiments*(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단편소설집 *Dust and Other Stori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그리고 최명익의 식민지 및 전후기 작품을 모은 *Patterns of the Heart and Other Stori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가 있으며, 이 번역들은 단순한 언어 이전을 넘어서 텍스트 내부의 미학적·이념적 구조까지 섬세하게 해석해 낸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When the Future Disappears*(2014)는 일제 말기 한국 문학에서 ‘미래’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체되거나 재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 작업으로, 한국에서는 『미래가 사라져갈 때』(김예림·최현희 옮김, 문학동네, 2021)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폴 교수는 현재 한국 문학의 영어권 정전 구축 과정에서 번역자의 비판적 위치, 서구 문학 제도 내에서의 한국 문학 담론 형성에 대한 이론적 질문을 제기하며, 탈식민주의와 감정사(affective history)를 접목한 독창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번역 및 정리한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명료한 한국어 표현을 지향했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넷 폴 교수가 일부 답변을 보완하고 덧붙이며 자신의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II. 전공의 전환, 시공간의 확장: 식민지 모더니즘 연구의 길

허빛: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게 되신 경

위가 궁금합니다. 일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국 문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계기와, 특히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넷 풀: 제 삶의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문학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독서를 사랑했고 특히 장편 소설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는 마지막 2년 동안 문학 중심의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에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문학을 탐독하는 데 항상 흥미가 있었지요.

대학교에 진학했을 당시, 프랑스어를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 선생님께서 “다른 언어를 배워서 취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저는 노동 계급 가정에서 자랐기에 대학원 진학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는 1980년대로 일본 경제가 한창 호황이었던기 때문에, 일본어가 취업에 도움이 될 실용적인 언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선택했죠.

이후 저는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SOAS)²에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2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의 한국학 석·박사과정은 언어, 문학, 역사, 사회문화 등 한국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문사회 기반의 전문 교육 과정이다. 석사과정(MA Korean Studies)은 1년제(폴타임 기준)로 구성되며, 핵심 모듈, 선택 모듈, 논문 작성을 포함한다. 대표 과목으로는 한국 문학, 정치와 사회, 한반도 분단과 전쟁, 한류와 대중문화, 재외한인 디아스포라 등이 있으며, ‘Research Methods in Asian Studies’와 같은 연구방법론은 필수 과목이다. 학생들은 1만 2,000단이 분량의 석사 논문을 제출하며, 강의와 세미나, 튜토리얼을 통해 연구 역량을 기른다. 박사과정(MPhil/PhD in Japanese and Korean Studies)은 독립적인 연구 중심의 과정으로,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집필하게 된다. 폴타임은 3년, 파트타임은 6년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한국학 분야의 문학, 언어학, 식민지 역사, 문화산업 등의 주제로 박사 논문을 제출한다. 또한 세계적인

지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동아시아학과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년 반 정도는 일본에 머물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입학 후 2년 이 지나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역사, 정치, 경제 혹은 한국어 중에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다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어나 한국 관련 진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어요. 그저 고등학생 시절 국제앰네스티 활동을 하며 한국을 접했던 경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앰네스티에서 수감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저희 그룹은 남한 사람을 담당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1986년이나 1987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어는 제게 점점 더 흥미로운 언어가 되었어요.

허빛: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자넷 풀: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마침 한국 문학을 가장 먼저 연구한 영국인인 윌리엄 스킬렌드(William E. Skillend)³를 만나게 됐습니다.

로 희귀한 한국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며, 현지 조사를 위한 한국 내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한국어 문법과 언어학을 연구한 연재훈 명예교수, 조선 후기 사회사를 다루는 앤더스 칼슨(Anders Karlsson) 교수, 현대 한국사 전문가인 오웬 밀러(Owen Miller) 박사, 한국 미술사 전공의 샬럿 홀릭(Charlotte Horlyck) 박사 등이 있다.

3 윌리엄 스킬렌드(William E. Skillend, 1926~2010)는 영국에서 한국학을 제도권 학문으로 정립한 선구적 인물로, 유럽 내 한국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보기관 블레츨리 파크에서 일본어 암호 해독가로 활동했고, 이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일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3년에는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에 유럽 최초의 한국학 전임 강사로 임용돼 본격적으로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조차 없던 상황에서 그는 직접 교수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해 한국어 및 고전 문학 강의를 개설했다. 1955년 첫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문학 연

그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지요.

이렇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20세기 초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두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이 경험이 제가 한국 문학을 공부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주어진 길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들은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거나 한국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알다시피 저는 한국에 어떠한 혈연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한국어 강의에는 저를 포함해 학생이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정말 소규모였고, 또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출했죠. 지금 제가 토론토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방식과는 꽤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에서 받은 훈련은 제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되었고, 특히 한자를 많이 배운 것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빛: 선생님께서 재학 중에 출판 번역 작업을 시작하신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자넷 풀: 우선 제가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읽게 된 시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런던에서의 학부 마지막 해에 로스 킹(Ross King)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학부 튜터였지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 아마도 2~3년간 런던에서 학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로스 킹 선생님과 함께 독립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단편 소설을

구에 박차를 가했으며, 1963~1964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도 한국 문학을 강의했습니다. 대표 저작은 한국 고대 소설을 다룬 *Kodae Soso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1968)이다. 한편 그는 1977년 유럽한국학회(AKSE)를 창립하여 유럽 내 한국학자들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 단체는 오늘날까지도 유럽 최대의 한국학 학술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함께 읽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정희 작가의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직접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지하게 번역 작업에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연구나 개인적인 독서를 위한 목적이었죠. 그 번역들은 당시에 출판되지 않았고, 한참 지나 발간되었습니다.

허빛: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대학을 거쳐 하와이대학교에 계시다가 컬럼비아대학교로 진학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한국 문학 연구를 이어 가셨을까요?

자넷 풀: 런던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하와이대학교에서 마샬 필(Marshall R. Pihl) 교수님의 지도하에 한국 문학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당시 영국에는 한국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킨덴드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 새로운 교원이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간 하와이에 머물며 학업을 이어 갔고, 이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컬럼비아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한국학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수였고, 컬럼비아대학교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문학을 전공한 전임 교수가 없었기에, 저는 주로 일본 문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한국 문학은 독립적으로 연구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학위논문은 한국 문학을 주제로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4년 동안 머물면서 논문을 집필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번역 일을 시작했지요.

허빛: 학업을 위한 번역이 아닌, 실제 업무로서 번역을 시작하신 거군요. 선

생님께서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넷 풀: 먼저 오정희를 다뤘던 시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브루스 풀턴(Bruce Fulton)이 한국 여성 작가들의 단편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숙, 오정희, 최윤 등 남한 여성 작가들의 1990년대 단편들은 당시 영어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저는 그때 주로 독자로서 그들의 작품을 접했을 뿐이지만, 이후 식민지 시기 모더니즘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몇몇 작품을 직접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번역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경력으로서 수행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간 머무는 동안 처음 2년은 장학금으로 생활했지만, 이후 2년간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번역 일을 많이 맡게 됐죠. 당시에는 전문 번역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료를 받으면서 제가 관심 있는 작가의 작품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의뢰받아 정해진 텍스트를 번역했지만, 때로는 작품을 미리 살펴보고 번역할 작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문학 가운데 처음 번역한 작품은 최명익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최명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였으니까요. 이후에 이태준을 번역한 이유는 그의 작품을 읽어가면서 점차 매혹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서록』⁴은 제가 번역해서 출판한 첫 책으로, 일화적인 에세이의 형태(수필)를 갖추고 있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마다 글을 쓰는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그 형식과 표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을 포함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아주

4 이태준, 『무서록(無序錄)』(서울: 박문서관, 1941). 『무서록』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Eastern Sentiments*(2009)라는 제목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즐거운 작업이었지요.

허빛: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번역하는 일 그 자체를 즐기시면서 최명익과 이태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넷 풀: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작가는 이태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를 통해 동국대학교의 황중연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황 선생님께서 저에게 최명익의 작품을 읽어 보라고 권하셨고, 이태준을 처음 접한 것도 아마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태준의 수필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위적인 서사 구조 안에 간헐 있지 않고, 삶과 일상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서 형식상 좀 더 자유로운 성격의 글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허빛: 『미래가 사라져갈 때』⁵에서 다루신 이태준과 1930년대 문학에 관한 연구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나요? 특히 수필 같은 형식에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넷 풀: 『미래가 사라져갈 때』에서 저는 이태준과 그의 수필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의 문학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기는 지식인의 사유가 억압받고 고난이 극심했음에도 어떻게 그리 다채롭고 뛰어난 문학 작

5 자넷 풀(저), 김예림·최현희(역), 『미래가 사라져갈 때: 식민 말기 한국의 모더니즘적 상상력』(과주: 문학동네, 2021). 영문 원서는 다음과 같다. Janet Poole, *When the Future Disappears: The Modernist Imagination in Late Colonial Kore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품들이 쓰였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필, 단편 소설, 철학적 에세이 같은 형식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문학 형식이 어떻게 자신이 속한 역사적 순간과 마주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식민지 파시즘이라는 시대적 경험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더니즘의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죠.

허빛: 번역에 대해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번역과 연구를 살펴봤을 때 1930~1940년대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식민주의와 냉전이라는 역사적 국면을 20세기 중반이라는 시기를 중심으로 연결해 바라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학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나요?

자넷 풀: 제 번역과 글쓰기의 기반이 된 주요 문제의식 중 하나는 바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20세기 중반입니다. 식민주의의 역사와 냉전의 역사는 종종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저는 이 두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식민 권력 구조가 해체되었으며 파시즘도 소멸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의 삶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과 지속성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저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애정을 가져 온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번역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하나의 특별한 독서이자 학문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 작업은 한국 근대문학과 식민지 문화사에 대한 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낸 책들이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컬럼비아대학교 출판사의 크리

스틴 던바(Christine Dunbar)⁶라는 편집자를 만나게 되었고, 던바는 제 작업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허빛: 이태준과 최명익의 작품을 번역하시면서, 특히 그들의 북한 시기 작품까지 포함해 전체 생애를 아우르는 작업에 집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넷 풀: 이태준과 최명익의 단편들을 번역하면서, 저는 이들의 창작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들이 북한에서 쓴 작품들을 진지하게 다루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후기 작품들도 초기의 유명한 작품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4월(2024년 4월)에 제 새로운 번역서⁷가 나옵니다. 저는 단순히 번역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저 번역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태준의 작품을 번역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 첫사랑은 언제나 최명익이었습니다. 그의 1930년대 작품을 가장 좋아하지요. 이번

6 크리스틴 던바(Christine Dunbar)는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 편집국장으로, 아시아 인문학 및 문학 번역 시리즈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인턴으로 출판부에 입사한 후, 편집 보조와 부편집자, 수석 편집자를 거쳐 2024년 편집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번역 작품의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가치를 중시하며, 단순한 소개를 넘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열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위구르 작가 페르하트 투르순(Perhat Tursun)의 소설 *The Backstreets*(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의 영어판 편집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현재 미국 버몬트주 노리치에 거주하며 원격 근무 중이며, 다트머스대학교 도서관을 활용해 학문적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7 Janet Poole, *Patterns of the Heart and Other Stori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

에 펴낸 *Patterns of the Heart and Other Stories*에는 「심문」을 비롯해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전쟁 이후에 이르는 최명익의 주요 단편 아홉 편⁸을 담았습니다. 이번 번역 작업은 제게 큰 설렘을 안겨 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애정 어린 번역을 오래도록 이어 가고 싶습니다.

허빛: 선생님은 한영 번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저는 전통적인 한국의 꽃 이름(할미꽃)이 프랑스어로 번역될 때 아네모네(anémone)로 번역되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번역가들의 다양한 해석 방식에 공감하지만, 번역작업이 때때로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번역가인 친구와 번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때때로 에이전시가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번역가보다는 연구자로 설정하고, 번역이라는 작업을 학문적 맥락 속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를 넘어서 콘텍스트 번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브루스 폴턴 선생님은 제게 번안과 번역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8 *Patterns of the Heart and Other Stories*는 북한 작가 최명익(Ch'oe Myǒngik, 1903~?)의 주요 단편 9편을 수록한 소설집으로, 2024년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자넷 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의 작품에 반영된 북한 문학의 정서를 영이권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수록 작품은 「비 오는 날」(《조선일보》, 1936), 「무정한 사람」(《조선일보》, 1937), 「새 길 위의 봄」(《조선일보》, 1938), 「심문」(《조선일보》, 1939), 「보통 사람들」(《조선일보》, 1940) 등 식민지 시기의 작품과 「보리언덕」(《조선문학》, 1947), 「기술자」(《조선문학》, 1951), 「영권동수」(《조선문학》, 1952), 「조상의 땅의 목소리」(《조선문학》, 1952) 등 해방 후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집은 자넷 폴 교수의 수준 높은 번역과 최명익의 내면적이고 현대적인 문체, 그리고 북한 문학의 중요성 재조명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넷 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휘가 언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어휘가 과연 완벽히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학기에 마친 제 번역 강의에서는 발터 벤야민의 아주 유명한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번역자의 과제」⁹를 읽어 보셨나요? 그는 독일어 단어 “Brot”(빵)과 프랑스어 단어 “Pain”(빵)을 비교하며 그 공통된 의미를 강조하지만, 이 두 단어는 단순히 같은 사물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르게, 그렇지만 ‘옳은’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Pain”은 아마도 크루아상이나 바게트일 수도 있고 “Brot”은 호밀빵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 단어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꽤나 다른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꽃의 번역 예시처럼, 번역어가 ‘아네모네’인지 ‘할미꽃’인지를 고민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서록』을 번역할 때 그런 쟁점들과 마주했었죠. 이태준은 실제로 낚시를 하다 본 물고기 이름을 꼼꼼히 기록하곤 했습니다. 낚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수필에는 물고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그 물고기들에 붙인 독창적인 이름들이 등장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특징을 살린 모국어 단어로 이름을 지어 소개하기도 했는데, 저도 그 단어들을 일일이 사전에서 찾아보며 의미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고기의 학명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라틴어로 된 특정 물고기를 지칭하는 라틴어 학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물고

9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발터 벤야민(지), 최성만(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서울: 길, 2008).

기들을 의미해도 실제로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가 라틴어에는 약하지만, 라틴어로 ‘카르파(carpa)’는 한국의 잉어와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영어로 ‘한국 잉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태준은 그의 수필에서 ‘한국 잉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잉어’일 뿐이죠. 저는 이태준이 언급한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과학적 명칭을 끼워넣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그가 전달하려 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이자 번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들어 내고자 한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때로는 매우 정확하게는 않은 것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덜 정확하게 말입니다. 예컨대 할미꽃을 프랑스로 ‘아네모네’라고 옮긴다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보통 꽃, 음식, 물고기, 동물, 식물학, 분류 체계 등에서 어휘를 찾습니다. 이러한 어휘들은 모두 매우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참고 문헌을 찾으면서 동일해 보이는 어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언어의 어휘는 각각 고유한 언어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세심하게 고려해 합니다.

허빛: 맞습니다. 저도 번역을 하거나 검토할 때 콘텍스트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껴요.

자넷 풀: 그렇죠. 어찌 보면 ‘정확성’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번역가로서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II. AI시대의 번역과 ChatGPT

허빛: 선생님께서 정확한 번역보다는 맥락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신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의 도래를 마주하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와 전환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콘텐츠를 포착하는 과정이 번역에서 중요하다고 본다면, 생성형 AI와 인간 번역가가 이러한 영역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자넷 폴: 저는 ChatGPT가 때로는 일정 업무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ChatGPT 이전에 번역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저도 스페인어를 배울 때 번역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습니다.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대화를 연습할 수 있어서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실용적이고 편리했죠.

그러나 실제로 ChatGPT가 대부분의 콘텐츠를 번역할 수 있음에도 문학 번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단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다 문학적이고도 복잡한 방식으로 창조된 의미를 겪으면서 의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ChatGPT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과편화된 언어들의 균질화를 위해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편화된 언어들 사이에는 정치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언어, 젠더, 인종에게 계급을 부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

성, 주류, 헤게모니의 권리를 강화하고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합니다. 그것이 ChatGPT의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비록 생성형 AI가 일상에서 유용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타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언어 사용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치성, 그리고 그로 인한 문화적 편향이 제가 ChatGPT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허빛: 저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생성형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현실이 걱정됩니다. 이런 무비판적인 사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자넷 풀: 저는 강의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한 후 학생들에게 ChatGPT가 만드는 침묵이 무엇인지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영어 사용에 대한 압박이 워낙 크다 보니 ChatGPT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경험이나 목소리가 소외되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ChatGPT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을 과연 원하는지 체감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허빛: 한국에서는 아직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토론 및 토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프랑스(2024년 6월)에서 인문학 학회¹⁰

10 2023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1회 'New Directions in the Humanities-Literary

에 참여했을 때, 인문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과 대화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문을 이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넷 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그중에서도 미국식 영어가 마치 글로벌 표준처럼 기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모든 학문적 산출물이 그 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유의 언어로 표현되는 타자로서의 경험이 침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V. 북미 한국 문학 번역 현황 및 쟁점

허빛: 한국 문학의 수요 증가라는 측면에서 북미 대학은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한국 문학도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 너머로 한국 문학의 수요가 보편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키』¹¹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해외에서

Landscapes: Forms of Knowledge in the Humanities' 학회가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대학교(Sorbonne Université)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회에서는 메인 발표를 비롯해 Talking Circle, 워크숍, 발표 세션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Community Exploration' 세션에서는 Transitioning Disability Advocacy within Community Settings through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라는 주제 아래, ChatGPT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참가자들은 ChatGPT의 필요성과 대체 불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생성형 AI가 창의성만은 쉽게 학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 11 정보라, 『저주토키』(서울: 아작, 2017). 영어판은 B. Chung, *Cursed Bunny*, A. Hur (Trans.)(Honford Star, 2021)이다. 해당 도서는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

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저주 토끼』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번역되면서 이 작품은 더 넓은 독자층과 만나며 인지도와 인기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자넷 풀: 네, 『채식주의자』¹²처럼 번역을 통해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봅니다.

허빛: 어떤 작품은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번역했을 때의 한국 문학이 기존보다 더욱 주목받는 현상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넷 풀: 저는 매우 다른 요소들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중성에 기댄다는 사실은 대중문화 자체를 구성하는 특성 중 일부지요? 저는 정부가 번역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요.

어떤 책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지는 솔직히 더 이상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체로 우연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SF 장르 문학과 같은 종류가 꽤 인기가 있다고

보에 올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작품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후 두 번째이다. 또한 2023년 미국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에서도 최종 후보에 올라, 영어권 독자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영어를 비롯하여 일본어, 독일어 등으로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 출간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2 『채식주의자』는 2007년 한국에서 출간되었으며, 2016년 영국의 포트벨로 북스 (Portobello Books)를 통해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뉴욕타임스》의 '21세기 최고의 소설 100선'에서 4위에 오르는 등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보고 있습니다. 여성 문학도 매우 인기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저 여러 쟁점들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출판 또한 산업이지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는 확실히 번역의 질이 좋거나 작품 자체가 지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독자층의 세대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청년층이 더욱 많은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로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책을 판매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출판업계가 독자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인구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독서율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결국 출판사만이 자사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주요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번역물은 상업 문학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이에 대한 답을 모른다고 봅니다. 최명익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적지요. 저는 번역 대상을 고를 때 첫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지를 보고, 둘째, 내가 그 작품을 옮길 만한 위치에 있는가를 봅니다. 이태준을 번역한 것도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번역가들은 한국어를, 일본어를, 한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라와 같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미국 영어로 잘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역할에 꼭 맞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한국 문학을 번역할 때 번역가가 그 범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문학은 장르와 시대를 넘나들며 높은 다양성을 보여 줍니다. 한강과 정보라처럼 현재 세계문학 무대에 소개된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태준, 최명익 등 식민지기 작가들 역시 그 흐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학적

스펙트럼이 번역을 통해 균형 있게 전달되는 일은 중요합니다.

허빛: 맞습니다. 번역에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번역 에이전시가 문학성만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대중성을 따르기도 하지요.

자넷 풀: 동의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이태준 작품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교수이기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이기에 좋은 점은 번역을 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재미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점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번역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번역가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이태준 작품을 번역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번역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지만 돈은 벌지 못할 테니 선택지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학문적인 번역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 배경이 있는 번역가가 반드시 더 뛰어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계에 몸담은 번역가는 천천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맡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더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젊은 전문 번역가들의 존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은 번역 업무를 직업으로 하기에 작업량도 많고 투입할 시간 자체도 넉넉하지요. 저희가 다양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번역되기를 원하듯이, 다양한 종류의 번역가들이 필요합니다.

허빛: 맞습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는 다른 국가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읽습니다. 그러나 번역은 언제나 문제 요소죠. 최근에 어떤 번역가들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듯한데

요. 한영 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문학을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해야 할까요? 언어적인 측면이 아닌 문학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요. 문학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자넷 풀: 이제는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번역가들이 훨씬 많아졌고, 번역가들의 문학적 감수성 자체가 나아졌습니다. 오래전 처음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꽤 있었어요. 한국어를 알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함에도 문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번역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문학을 사랑하는 번역가입니다. 단지 한국 문학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번역가들이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을 읽는 것도 중요하며, 영어로 번역된 문학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문학적 언어에 헌신하고 생각하는 번역가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번역가들이 문학을 번역한다는 사실이 늘 의아했고, 그들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택했는지 궁금했어요.

훌륭한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저는 많은 것을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읽고,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저도 한국어 작품을 영어로 옮기면서 제 언어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됐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원어민이라고 해서 그 언어로 글을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당 언어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언어로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허빛: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는 분명히 다르죠.

자넷 풀: 매우 다르죠. 그 두 가지는 분명 다른 기술적 영역입니다. 말하는 언

어와 쓰는 언어는 함께 습득할 수도 있지만 훈련 방법이 다릅니다.

허빛: 선생님의 답변을 떠올려 보니 여성 소설이나 여성 세대라는 종류를 나눠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여쭙습니다.

자넷 풀: 여성 소설들을 읽기는 하지만, 저는 여성 소설은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젠더적 경험은 중요하고 페미니즘은 여성의 범주를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했을 때의 작품들은 대부분 여성 소설로서 번역된 것들이었습니다. 여성 문학이 번역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의 문학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소설을 소수 소설로, 여성 번역가를 소수 번역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대부분 여성이 여성 문학을 번역하고 있기에 이 점이 꽤 흥미롭습니다. 한국 문학은 타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를 깊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서사와 갈등을 읽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성 서사와 갈등을 많이 읽지만 특정 장르의 범주로 제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V. 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허빛: 토론토대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고전이나 현대 한국 문학¹³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대학교

13 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동아시아학과와 한국연구센터를 양대 축으로 삼아 운영되며, 언어 교육과 함께 역사, 문학, 정치, 사회,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학부 과정에서는 초·중·고급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 대중

에서 어떠한 종류의 강의를 맡고 계신가요?

자넷 풀: 토론토대학교에는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200레벨 강의(북미권 대학교 학부 2학년 수준의 강의)는 학부 입문용 대형 수업으로, 신소설부터 신경숙 작가까지 20세기 한국 단편 소설을 주로 읽고 글을 쓰는 과목입니다. 일주일에 단편 하나를 읽고 글을 써 보도록 하는데,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그 밖에도 모더니즘이나 일제 강점기를 다루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강의도 맡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더니즘을 다루지만 주로 일제 강점기 문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더 작은 형태의 강의도 개설돼 있고, 20세기 한국의 정치적인 미학을 다루는 200레벨의 경우, 8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3학년을 위해서는 고전적인 대형 강의를 있고, 모더니즘 수업에는 4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4학년 과정에서는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워크숍을 열어, 작년에도 학생들과 함께 각기 다른 방식의 번역을 시도했고, 번역의 다양성을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허빛: 저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입문 강의를 접해 봤는데요. 거기서 디아스포라 문학과 여성 문학 같은 한국 문학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넷 풀: 기본적으로 20세기의 미학이나 정치라는 뼈대에서 매년 다양한 시

문화, 영화와 문학, 젠더, 도시사회 등 주제별 강의를 조합해 Korean Studies Specialist, Major, Minor 트랙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다전공 제도를 활용해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과 의 융합 학습도 가능하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은 동아시아학 전공 내에서 한국 관련 주제로 개별 연구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문학과 사상, 분단 체제, 냉전기 정치문화, 탈식민 담론 등을 중심으로 한 심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도를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 문학을 많이 읽지만, 여성 문학을 특정 장르로 구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는 결국 우리 교수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더니즘에 대한 것이지 현대 문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토론토대학교에는 꽤나 많은 교수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도 각기 다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빛: 최근의 많은 캐나다 대학교들이 한국 문화를 넘어 학업적으로 한국 문학을 확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자넷 풀: 한국 문학이 현재 인기 있는 이유로는, 먼저 토론토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¹⁴을 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1학년 수준의 강좌만 해도 매년 200명이 등록하고, 100여 명의 학생이 대기 명단에 올라 있지요. 단순히 동아시아학부에서만 봐도 정말 높은 수요입니다.

앙드레 슈미드(Andre Schmid) 교수는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미셸 조(Michelle Cho) 교수는 미디어와 영화를 가르칩니다. 사회학과에는 혜윤 주(Haeyeon Choo) 교수, 윤경 리(Yoonkyung Lee) 교수가 포진해 있으며, 인류학에서는 지숙 송(Jesook Song) 교수가 있습니다. 토론토대학교는 활발

14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과목 또는 독립적인 외국어 수업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뉘며, 총 6학기(3년제) 학제로 개설돼 있고, 비전공자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모든 한국어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회화·문법·작문·독해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2024년 기준,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연간 500명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어, 중국어 수요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국어 수업만 수강하는 학생은 한국학 전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1-토론토대학교의 한국학 학부 커리큘럼

학년	강의명	내용 요약
1학년	EAS100H1: Introduction to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
	EAS105H1: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사회적 맥락에서 탐구
	KOR100Y1: Elementary Korean	기본 문법, 어휘, 일상 회화를 포함한 한국어 초급
2학년	EAS270H1: Narratives of 19th-Century Korea	19세기 조선의 사회 변화와 역사적 사건 서사 분석
	EAS271H1: 20th Century Korean Colonial History	일제 강점기와 분단 이전의 20세기 초 한국사 탐구
	EAS272H1: The Two Koreas in World History	남북한을 세계사 맥락에서 비교하며 국제정세 속 위치 분석
	EAS278H1: Approaches to Korean Cinema	한국 영화와 사회, 역사적 맥락의 관계 분석
	KOR200Y1: Intermediate Korean	중급 문법과 어휘로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문화 이해
3학년	EAS358Y1: Korean Literature and Film	한국 문학과 영화의 교차점을 통해 사회문화 분석
	EAS333H1: Modernism and Colonial Korea	식민지 근대성과 모더니즘 문학, 예술의 관계 고찰
	EAS370H1: Media, Cultural Citizenship, and the Korean Diaspora	미디어와 디아스포라 정체성, 문화적 시민권 분석
	EAS372H1: The Postwar, Cold War and Divided Koreas	분단과 냉전 속 남북한의 사회·정치 변화 탐구
	EAS373H1: Revolutionaries, Rebels, and Dissent in Korea's Long 20th Century	20세기 한국의 저항과 혁명적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KOR300Y1: Advanced Korean	고급 문법 및 토론, 원문 독해를 통한 한국어 능력 확장
4학년	EAS417H1: Korean Literary Translation Workshop	한국 문학 번역 실습과 이론적 접근 학습
	EAS410H1: Topics in Korean Studies	한국학의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세미나
	EAS432H1: Korean Cultural Studies Seminar	현대 한국 문화현상의 이론적 분석과 토론
	EAS452H1: The Korean War, Global Cold Wars, and Decolonization	한국전쟁과 냉전, 탈식민화의 상관관계 분석
	EAS465H1: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ism	일제 식민통치기의 구조와 문화적 영향 탐구
	EAS466H1: Rethinking North Korean History	북한사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 방식 제시
	EAS468H1: Democratic Struggles in Korea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사회적 투쟁사 탐구
	EAS471H1: Issu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적 쟁점 및 변화 분석
	EAS473H1: Modern Korean Historiography	현대 한국 역사 서술 방식과 해석 방법론 탐색
	EAS488H1: Fandom, Transmedia, and the Korean Wave	한류, 팬덤 문화, 트랜스미디어 현상의 글로벌 영향 분석

표2-토론토대학교의 학부 과정 현대 한국어 강의 커리큘럼

학년	강의명	내용 요약
1학년	EAS110Y1: Modern Standard Korean I	한글의 음운 체계 이해 및 기본적인 일상 대화 능력 배양
2학년	EAS210Y1: Modern Standard Korean II	기초 이후의 상황 중심 의사소통 능력과 말하기 유창성 향상
	EAS211Y1: Accelerated Modern Standard Korean I & II	속성 초, 중급 통합 과정으로 실생활 중심 한국어 집중 학습
	EAS212H1: Accelerated Modern Standard Korean II	속성 중급 한국어로 복잡한 문법과 어휘를 학습
3학년	EAS310Y1: Modern Standard Korean III	중급 이상의 주제별 토론 및 발표 중심 한국어 심화 학습
4학년	EAS410Y1: Modern Standard Korean IV	고급 텍스트 분석 및 학술 발표, 글쓰기 능력 강화
	EAS416Y1: Academic and Professional Korean	학술, 직업 상황에 적합한 고급 한국어 표현 및 작문 능력 배양

한 연구 활동과 교육을 병행하는 교수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학문성과 교육적 깊이를 동시에 갖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 강의는 꼭 차 있습니다. 제가 20세기 한국 문학을 가르칠 때는 80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실패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문학은 토론토에서 매우 인기 있으며 관심도가 높습니다. 토론토에는 북미에서 LA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문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한국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의 관심사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허빛: 저는 한국 고전 문학 수업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가 현 시대의 캐나다 대학교 내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 문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특히 고전 문학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도서

관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넷 풀: 저는 넷플릭스가 전통 문화를 여러 방식으로 변형해 보여 주며, 그중 일부는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기이하거나 낯선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줄곧 그래왔다는 듯 밝은 색 옷을 입은 여성이 길을 걷고 있고, 저는 그 장면이 재밌습니다.

제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중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국 문학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수업 분위기와 학생 구성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뉴욕에서 강의할 때만 해도 주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중 영화를 전공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두고 수강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보다는 글로벌 대중문화인 K-pop이나 K-drama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요.

허빛: 토론토대학교의 한국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CSK)¹⁵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5 한국연구센터는 토론토대학교 내 한국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공공성과 국제적 가시성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연구센터는 학술 콜로키움, 저자 초청 강연, 영화 상영회, 정책 라운드테이블, 미디어와 한류 관련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학내의 연구자와 일반 대중을 아우르는 개방형 담론장을 조성한다. 특히 학부생 번역 공모전인 James Scarth Gale Translation Prize, 한국 현대문학 낭독회, 다언어 번역 워크숍 등은 학문적 활동을 교육과 문화 실천으로 확장하는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한국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협력해 학술 교류, 국제학회 유치, 초빙 연구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토론토와 서울을 잇는 지식 교류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자넷 풀: 토론토대학교 아시아연구소(Asian Institute) 산하에 한국 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CSK)가 있으며, 이 센터의 기능 중 하나가 진로 탐색입니다.¹⁶ 저를 포함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이곳과 연계해 강의 시리즈,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VI. 나가며

허빛: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문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자넷 풀: 정말 큰 질문이네요. 제 일과 경력을 돌아보면, 한국 문학은 다양한 삶의 경험이 문학적 글쓰기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해 준 매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문학을 많이 읽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문학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을 자주 읽기는 하지만, 저의 독서 시간이 대부분 한국 문학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동독 문학을 많이 읽습니다. 동독 문학은 꽤 흥미롭거든요. 저는 문학이

16 토론토대학교 먼크 글로벌정책대학원 산하에 아시아연구소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아시아 관련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공자 대상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으며, 정기적인 세미나, 공개 강연, 학술 워크숍, 번역 워크숍, 영화 상영회 등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한국학, 일본학, 중국학, 동남아시아학 등으로 구성된 세부 지역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으며, 한국연구센터와 같은 하위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 문학, 역사, 미디어, 디아스포라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어떤 형태나 글쓰기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문학은 살아 있는 경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20세기 문학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 20세기 중반에 쓰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예술이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석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민주의, 탈식민지화, 파시즘, 공산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크고 큰 질문들입니다. 파시즘은 사라지지 않았고, 식민주의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학이 20세기의 중대한 역사적 문제들을 사유할 수 있는 고유한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는 복잡하고 폭력적인 경험이 얽힌,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식민주의와 탈식민화, 그리고 그 이후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문제들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은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화’라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고, 한국은 그 과정을 겪으며 형성된 하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이 매우 흥미로운 사례 연구의 대상이자 새로운 사고의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문학이 저에게 살아 있는 역사적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허빛: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넷 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빛: 혹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한국 문학의 어떤 모습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자넷 풀: 저는 보여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독서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번역 활동을 통해 독자들과 한국 문학을 공유하고 있지만, 강의에서의 독서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텍스트를 작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문학을 읽고, 서로 다른 순간, 다른 공간, 다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보여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 한국 문학의 특정 모습이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독서 경험에서 어떤 지식이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할 뿐입니다.

허빛: 문학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한국 문학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문학의 형태를 정확히 기준 짓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문학을 전공한 이래 줄곧 안고 있던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넷 풀: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허빛: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자넷 풀(Janet Poole) 교수 약력

토론토대학교 세인트조지 캠퍼스 동아시아학과 교수



학력

-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한국문학 석사
- 런던대학교 일본어 및 한국어 전공 학사

주요 연구 분야

- 식민지기 한국 문학과 모더니즘
- 탈식민주의 이론과 문화사
- 번역 이론 및 문학 번역
- 사진 및 시각문화 연구(신문 사진의 식민지적 시각성)

자넷 풀 교수

주요 저서 및 번역

- *Patterns of the Heart and Other Stories*(2024)
- *Picturing a Moment: The Colonial Visions of Newspaper Photography in Early Twentieth-century Korea*(2022)
- *Dust and Other Stories*(2018)
- *When the Future Disappears: The Modernist Imagination in Late Colonial Korea*(2014)

수상

- Chancellor Jackman Faculty Research Fellowship(2020)
- SSHRC Insight Grant(2017)
- James B. Palais Book Prize Honorable Mention, AAS(2016)
- Modernist Studies Association Book Prize(2015)
-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Book Prize(2012)

국문초록

이 논고는 토론토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자넷 풀(Janet Poole)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 풀 교수의 학문적 여정과 한국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번역을 통해 형성되는 탈식민적 사유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식민지기 및 전후의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서구 독자에게 소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번역을 단순한 언어 이전의 작업이 아닌, 깊이 있는 독해와 해석,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행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을 넘나드는 가운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배경, 이태준과 최명익이라는 두 작가에 대한 애정과 그들 작품의 번역 과정, 식민주의와 냉전을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일환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북미 대학에서 한국 문학이 수용되는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구술하였다. 번역가이자 학자로서 활동하는 자넷 풀 교수는 번역이 타자의 목소리를 보존하고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윤리적 행위를 강조했다. 이 글은 한국 문학의 해외 수용 양상과 번역 및 탈식민주의, 그리고 학문적 번역 실천의 의미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투고일 2025. 5. 30.

계재 확정일 2025. 6. 4.

주제어(keywords) 자넷 풀(Janet Poole), 한국 문학 번역(학)(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studies)),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한국 문학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북미 한국 문학 연구(Korean literature studies in North America)

Abstract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Postcolonial Thought: Professor Janet Poole's Perspectives of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Heo, Bit

This interview features Professor Janet Poole from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focusing on her academic trajectory, sustained engagement with Korean literature, and postcolonial potential made possible through translation. Professor Poole translated a wide range of Korean literary work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colonial and post-war periods, into English and introduced them to Western readers. For her, translation is not merely a linguistic act, but a deeply interpretive and historically situated mode of thought. The interview explores the intellectual path that led her from Japanese to Korean literature, her long-standing interest in writers such as Yi Tæjun and Choe Myŏngik, and her translation practice. It also addresses her perspective of the colonial and Cold War periods not as separate, but as historically continuous, and discusses the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in North American academic institutions. Reflecting on her dual role as translator and scholar, Poole emphasizes the ethical dimension of translation as a means of preserving the voices of others and conveying complex emotions and lived experiences. The interview offers meaningful insights for scholars interested in the global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postcolonial theory, and critical possibilities for scholarly translation practice.